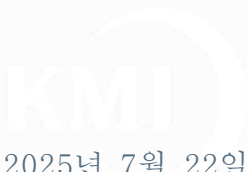


월간

KMI 아시아 오션 리포트

KMI Asia Ocean Report



2025년 7월 22일

No. 7

해양수산뉴스 ————— 1

- 중국 수산물 무역, 냉동어류 · 가공품 수출 호조 1
- 중국 발개위, 국가물류거점 30곳 지정 발표 3

포커스 ————— 5

- (특집) 2025년 중국 수소 에너지 발전 현황 보고 5
- (특집) 중국 수산업 동향 및 정책 분석 15

통계 및 자료 ————— 23

- 경제/해운/항만/수산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발행인: 조정희 원장 | 총괄: 김태일 센터장 | 감수: 한덕훈 본부장

Rm.1715, Nanfengcheng(B), 100 Zunyi Road, Changning, Shanghai, China
+86-21-6090-0395~6 +86-21-6090-0397



해양수산 뉴스

중국 수산물 무역, 냉동어류·가공품 수출 호조¹⁾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이 2025년 들어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5월 기준,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6% 넘게 증가했으며, 특히 수입 증가폭이 수출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측면에서는 수출은 늘고 수입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 관찰됐다.

수출 품목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수산가공품, 냉동 어류, 연체동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도 냉동 어류는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공품은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공 수산물은 일본, 한국, 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기록했고, 한국 수출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냉동 어류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코트디부아르, 태국, 가나 등지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미국과 한국에서는 다소 주춤한 흐름이 나타났다. 연체동물과 갑각류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이 핵심 수출국이며,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시장으로도 점차 수출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편, 활어와 냉장 어류는 여전히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 수요가 절대적이며, 해조류는 일본과 대만이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유럽과 중남미에서는 훈제·염장 어류를 중심으로 점차 중국산 수산물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다.

수출 대상국 중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최대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미국 시장은 전년 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지로의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갑각류와 냉동 어류가 주력 품목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에콰도르, 러시아, 베트남이 주요 공급국이며, 이 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전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아 주목받고 있다.

갑각류는 에콰도르산 새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와 캐나다산 제품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1) 对外经济贸易大学数字经济实验室(2025.7.2.), 中国水产品贸易月度监测报告(2025年1-5月)



해양수산 뉴스

도 활발히 수입되고 있다. 냉동 어류는 러시아산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미국, 인도네시아 등도 주요 공급국이다. 연체 동물류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미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국가별로 수입량 증감 폭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그 외에도 냉장 생선류는 노르웨이,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이 급증했다. 활어 수입은 필리핀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이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수입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산물 무역은 품목별, 국가별로 수요 양상이 뚜렷하게 분화되는 가운데, 신흥국 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내 수산업과 가공 산업 구조 변화, 고급 수산물 수요 확대, 글로벌 교역 흐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해양수산 뉴스

중국 발개위, 국가물류거점 30곳 지정 발표²⁾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발개위)는 최근 30개의 국가물류거점(国家物流枢纽)을 건설 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아래 표 참조).

[중국 국가물류거점 유형별 30곳]

단위: 개

국가물류거점	지역	개수
육상 항만형	베이징 평구(平谷), 선양, 난징	3
생산서비스형	톈진, 타이와이(台外), 닝보, 마안산(马鞍山), 핑샹(萍乡), 우한, 난닝(南宁), 위시(玉溪)	8
상무서비스형	량팡(廊坊), 타이위안(太原), 다롄, 창춘, 수이화(绥化), 허페이(合肥), 평탄(平潭), 광저우, 청두, 란저우(兰州), 우루무치	11
육상 국경형	바옌나오얼(巴彦淖尔) 간치마오두(甘其毛都)	1
항만형	난통(南通), 저우커우(周口)	2
항공형	하얼빈, 창사, 구이양, 인촨(银川), 우루무치	5
	합계	30

자료: 작성자 재구성

이번에 건설 대상에 포함된 물류거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산업과의 밀접한 융합을 통해 거점 경제를 추진한다. 생산서비스형 및 상무서비스형 국가물류거점은 총 19개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이들 거점은 각 지역의 자원 조건을 바탕으로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산업 사슬에 깊이 연결되어 특색 있는 거점 경제를 육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닝보 생산서비스형 국가물류거점은 녹색 석유화학, 신에너지 자동차, 고급 장비, 신소재 등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공급망 기반 시설을 배치하고,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사슬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고 있다. 청두 상무서비스형 국가물류거점은 농산물 거래시장을 기반으로, 대량 상품 유통과 냉장 물류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공 산업 사슬을 확장하여 ‘생산-보관-유통’ 일체형의, 원재료부터 고부가가치 농산물까지 아우르는 전 품목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국제 물류 통로를 원활히 하여 지역의 대외 개방을 지원한다. 관련 거점들은 지역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 통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대외 개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하얼빈 항공형 국가물류거점은 국제 항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러시아 및 한·일을 향한 하늘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하얼빈-하바롭스크³⁾-서울’ 노선을 통해 국경 간 환송 효율을 30% 향상시켰다. 바옌나오얼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2) 《航运交易公报》总第1438期, 2025年7月1日出版, 国家发展改革委发布30个国家物流枢纽

3)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주요 도시



해양수산 뉴스

(간치마오두) 육상 국경형 국가물류거점은 몽골을 향한 물류 통로의 서비스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통관 편의화 수준과 국제 환적 조직력, 물류 가공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북방 개방의 주요 관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운영 효율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해당 국가물류거점들은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자원을 통합하여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며, 더 고품질의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중국의 국정에 맞는 현대 물류 운영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저우커우 항만형 국가물류거점은 서비스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 환적’ 기반의 ‘내륙 수운 + 해운’ 릴레이 운송 모델을 시행해 내륙 수운을 활용하여 해안 항구와 연결하고 글로벌 수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육상-해상 연계 운송에 비해 약 13%의 시간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양 육상항만형 국가물류거점은 ‘중·유럽 화물열차 통관 정보화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관, 철도, 물류 거점 등 여러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다단계 작업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관 간 협업 효율을 50% 이상 향상시켰다.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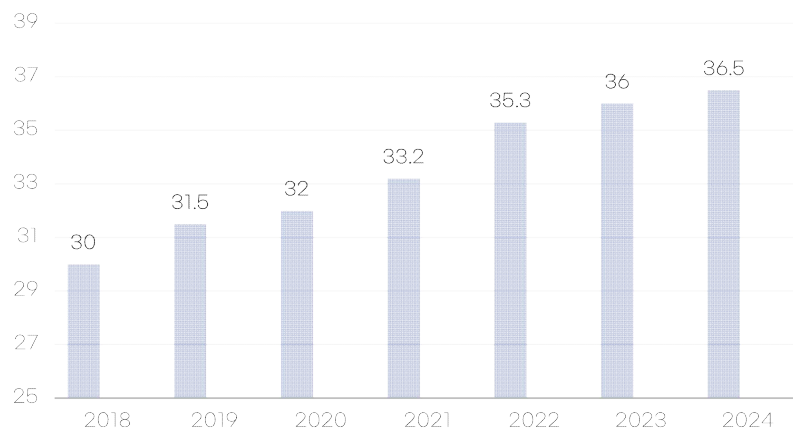
2025년 중국 수소 에너지 발전 현황 보고4)

1. 중국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으로, 2024년 중국 수소 생산 및 소비의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는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었고, 화북 및 서북 지역의 전통 산업과 재생에너지가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5,000만 톤을 초과하였고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연간 수소 생산량은 3,650만 톤을 초과하여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

[중국 연도별 수소 생산량]

단위: 백만 톤



자료: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작성자 재구성

[중국 수소 생산능력 및 생산량 (2024년 기준)]

단위: 만 톤/년

구분	생산능력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감률
전체	5,000+	+1.6%	3,650+	+3.5%
석탄 기반 수소	2,800	+0.7%	2,070	+6.7%
천연가스 기반 수소	1,080	거의 동일	760	-4.4%
산업 부산물 수소	1,070	+5.3%	770	+4.0%
전기분해 수소	50	+9.7%	32	+3.6%

자료: 저자 작성

2024년 기준, 중국은 화석에너지 기반 수소가 여전히 주요 수소 공급원으로, 석탄 기반 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약 2,8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0.7% 증가하였고,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4) <2025 중국 수소 에너지 발전 보고서(中国氢能发展报告(2025))>



포커스

생산량은 약 2,0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6.7%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석탄 기반 석유·가스 생산에 활용되었다.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능력은 약 1,080만 톤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며, 생산량은 약 7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4.4% 감소하였다. 산업 부산물 수소 생산능력은 약 1,0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5.3%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약 77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전기분해 수소 생산능력은 약 5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9.7%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약 32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하였다.

수소의 생산 및 소비는 주로 산둥, 네이멍구, 산시, 닝샤, 산시 등 전통 중공업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메탄올 합성 및 암모니아 합성의 수소 소비량이 각각 약 995만 톤, 950만 톤으로 수소 소비 세부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각각 전체 소비의 27%, 26%를 차지하였다. 정유 및 석탄화학 분야의 수소 소비량은 각각 약 600만 톤, 405만 톤으로 전체 수소 소비의 16%, 11%를 차지하였다. 기타 수소 소비는 교통, 난방, 야금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2024년 수소에너지 생산 가격이 가속적으로 하락하며, 그 하락 효과가 점차 소비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료전지차 시범 등의 정책은 수소 생산 및 소비 가격에 대한 유도 효과를 점차 드러내고 있다. 중국 수소 가격 지수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평균 생산과 소비 수소 가격은 각각 30위안/kg 및 52위안/kg 이하로 하락했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수소 생산 가격은 28.0위안/kg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 하락했으며, 소비 가격은 48.6위안/kg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7% 하락하여, 생산과 소비 평균 가격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수소 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 분포]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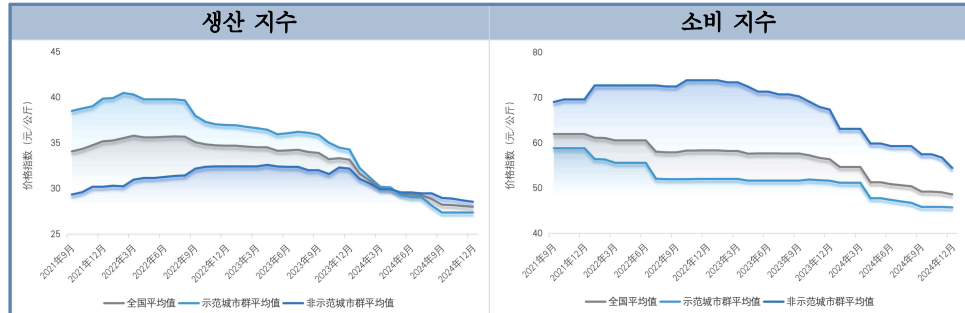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포커스

[중국 수소 생산 및 소비 가격 지수]

단위: 위안/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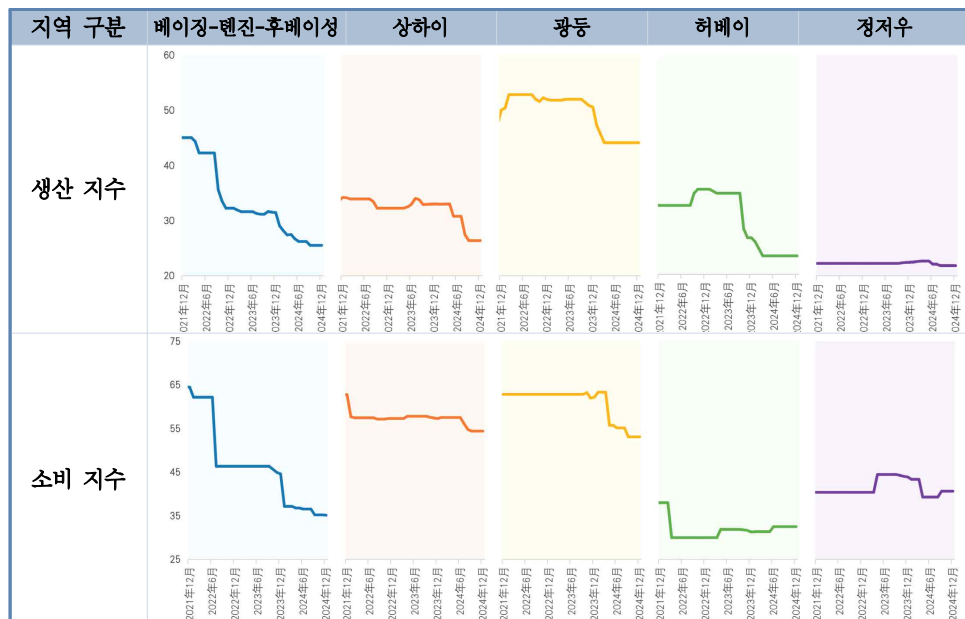


자료: 중국수소가격지수연도보고서(2025년 판)

지역별로 보면, 2024년 말 시범 도시군의 수소 생산과 소비 측 가격은 각각 27.4위안/kg, 45.7위안/kg이며, 비시범 도시군은 각각 280.5위안/kg, 56.4위안/kg로 시범 도시군이 가격 면에서 우위를 보였다. 추세를 보면, 시범 도시군과 비시범 도시군 간 가격 격차가 뚜렷하게 축소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말 시범 도시군의 생산 측 가격은 비시범 도시군보다 각각 45위안/kg, 2.7위안/kg 높았으나, 2024년 말에는 1.1위안/kg 낮아졌다. 소비 측 가격의 경우, 2022년, 2023년, 2024년 말 각각 21.8위안/kg, 15.7위안/kg, 10.7위안/kg 낮아졌으며, 관련 정책이 수소 가격 하락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5대 시범 도시군 수소 생산 및 소비 가격 지수]

단위: 위안/kg



자료: 중국수소가격지수연도보고서(2025년 판)



포커스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누적 계획 및 건설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분해 수소 프로젝트는 600개를 초과하였으며, 그중 완공된 프로젝트는 90개 이상,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80개 이상이다. 완공된 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약 12.5만 톤으로, 주요 분포 지역은 화북과 서북 지역으로 각각 전국 전체 완공 수소 생산능력의 약 45%, 44%를 차지한다. 2024년에 새로 완공된 프로젝트는 35개로, 신규 생산능력은 약 4.8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였다. 하류 소비 측면에서는 주로 교통, 정유, 암모니아 합성, 메탄올 합성, 야금, 난방, 발전, 에너지 저장, 과학 연구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중국 수소에너지 기술 발전 및 다분야 응용 계획]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생산	- 메가와트급 양성자 교환막 전해수 수소 장치 상업 운용 - 음이온 교환막 전해조 출하 및 철강 분야 적용 - 풍력 오프그리드 수소 시범 상업 운용 - 해수 전기분해 수소 장치 시험 운행 - 천연수소 탐사 프로젝트 착공
저장 및 운송	- 70MPa IV형 저장 용기 철도 차량 장착 - 하루 5t 수소 팽창 액화 시스템 성공 - 차량용 액화 수소 시스템 시험 통과 - 고압 혼합 수소 수송관 완공 - 도시가스 30% 수소 혼합 연소 실험 성공 - 지하 암염동굴 저장소 시추 시작
산업용 응용	- 재생 수소 기반 합성암모니아 설비 투입 성공 - 그린수소 기반 암모니아 통합 시범사업 승인 - 고로 고수소 제련 및 고정로 시범 설비 가동 - 수소 기반 자동차용 강판 생산라인 가동 - 신재생 수소가 산업용 가스로 활용
교통용 응용	- 연료전지차 누적 1.5만대 보급, 충전소 160곳, 3.9억km 운행 - 베이징~상하이 고속도로 장거리 물류 운행 - 2400kW 수소기관차 운용, 수소 항공기 첫 비행 - 메탄올 추진선·암모니아 추진선 연료 주입 성공 - 대형 메탄올 컨테이너선 연료 공급 실현
전력 응용	- 연료전지 발전·열병합 발전 2만kW 초과 - 100kW 고온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개발 - 50MW급 가스터빈 30% 수소 혼합 연소 실험 완료 - 메가와트급 순수 수소 가스터빈 시험 검증 완료
기술 장비	- 총 6개 장비가 에너지국 중대 기술 장비로 선정: ①5MW 알칼리 전해수 장치 ②수평형 수소 저장 시스템 ③수소 액화 시스템 ④전극판 연료전지 스택 ⑤고온 고체산화물 전해장치 ⑥탄소섬유 수소 용기 및 트레일러
혁신 플랫폼	- 국자위 주도 기업형 수소 기술 컨소시엄 구축 - 제14차 5개년 계획 중간 평가 진행 - 12개 중점 과제 설정, 기존 과제 및 “수소 만 가정” 프로젝트 성과 정리
산업 육성	- 연료전지 중심에서 전주기 투자 확대 - 과학관 상장 1개사, 홍콩 상장 5개사
특허 현황	- 누적 8만 건 이상 출원, 세계 1위 - 분야별 비중: 수소 생산(37%), 저장·운송(40%), 응용(23%), 공통기술(41%)

자료: 저자 작성



포커스

2. 중국 수소 발전계획

2025년 4월,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24년 세계와 중국의 수소에너지 발전 현황, 2025년 발전 전망을 담은 <중국 수소에너지 발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5년은 제15차 5개년 계획(十五五)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해이며,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이 경제성 측면의 한계점을 넘어 대규모 산업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이다. 국제 수소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수소에너지 응용 경제성 제고, 핵심 기술 장비의 수준 향상, 정책 지원 체계 완성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중국은 5가지 대응을 통하여 국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더욱 정교한 공급망과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청정·저탄소·안전 고효율의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 상위 단계의 정책을 설계하고 전반적인 통합을 추진하며,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각 부처 간 전반적인 조정 및 분업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간 산업 협력 및 정책 연계를 통한 일관된 산업 배치와 시장 확산 추진한다. 둘째, 국가 핵심 연구·개발 프로그램,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 및 혁신 플랫폼, 친환경 및 저탄소 첨단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저비용 대용량 전해수 수소 제조, 대규모 수소 액화, 저장 및 운송용 신형 소재, 수소 암모니아 연소 메커니즘, 수소 야금,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및 도구 연구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천연수소 탐사, 고온 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연소 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품질지원을 활성화한다. 수소 통계 시스템 및 산업 정보 플랫폼 구축, 인증 및 시험검사 기반 확립하고, 수소 산업의 품질 보증 및 표준 인증 시스템 강화한다. 넷째, 수소에너지 시범 프로젝트 및 기술을 상용화한다. 내몽골-베이징 간 장거리 수소 파이프라인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하고, 교통, 철강, 석유 화학 등 중점 산업에서의 수소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국제간 협력을 확대한다. 수소 에너지의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수소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한다. 유엔, G20, 브릭스, 아세안 등 다자 기구에서 국제 수소 무역 및 기술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서의 수소 프로젝트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3. 주요 정책

다음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내놓은 2025년 수소 관련 주요 정책과 프



포커스

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25년 중국 중앙정부 수소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젝트]

일시	정책 및 프로젝트	세부 내용
2월	제조업 녹색화 발전 촉진 지도 의견	-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 「제조업 녹색화 발전 촉진 지도 의견」 발표 - 석유화학, 철강, 교통, 에너지 저장, 발전 등 분야의 수소 수요에 맞춰 수소 생산·저장·수송·활용 전 산업 체계 구축 - 수소 기술의 경제성 및 산업망 완성도 제고 요구
3월	녹색 저탄소 신진 기술 시범 프로젝트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8개 수소 관련 프로젝트 선정 - 주요 프로젝트: 암모니아 혼소 기술, 풍력-수소 통합 시범, 수소 가스터빈, 50만 kW 풍력 수소·암모니아 생산 등
6월	석탄 발전 저탄소화 개조 행동 계획 (2024-2027)	-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 활용한 녹색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혼소 기술 도입 - 10% 이상 암모니아 혼소 가능한 설비로 개조, 석탄 소비 및 탄소 배출 감축
7월	경제사회 전면적 녹색 전환 가속화 의견	- 중앙정부 발표로 수소 “생산-저장-수송-활용” 전 과정 발전 촉진 - 교통 인프라(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확충 및 표준 체계 구축 강조
8월	2025년 수소 기술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 국가에너지국이 수소 생산·저장·동력 시스템 등 4개 기술 방향에 관한 연구 개발 지원
11월	신형 에너지 저장 제조업 고품질 발전 행동 계획	- 수소 저장 기술 등 초장기 저장 기술 선제적 배치 - 사막·황무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모델 탐구
	에너지법	- 전국인대 상무위 승인으로 수소를 석탄·석유와 동등한 에너지원으로 명시
	연료전지 차량 시범 보상금 16.25억 위안 지원	- 재정부 2025년 보조금 예산 확정 - 누적 지원액 27.67억 위안 달성
12월	공업 분야 청정 수소 응용 시행 방안	- 2027년까지 야금·암모니아·메탄올 등 산업 분야에서 수소 규모화 적용 목표 - 교통·발전·저장 분야 상용화 모델 구축
	연료전지 차량 시범 정책 보완 통지	- 시군 시행 방안 최적화·자금 효율성 제고·수소 공급망 강화 등

자료: 저자 작성

[2025년 중국 지방정부 수소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젝트]

지역	정책 및 프로젝트	세부 내용
산둥성	수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4년 3월~2026년 2월까지 시행, ETC 장착 차량 대상
광둥성	광저우-잔장 수소 고속도로 시범 프로젝트	6월, 물류 거점에 수소충전소 건설 및 4.5t·49t 냉장차 운행
쓰촨성	수소 산업 표준화 계획	8월, “산화연” 협력 강화 및 국제 표준 참여 확대
상하이시	해운 연료 녹색 전환 작업 방안	10월, 2030년까지 국제적 녹색 연료 공급 중심지 구축
내몽골	녹색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11월, 3단계에 걸쳐 지역 간 수소 수송망 완성 예정

자료: 저자 작성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포커스

4. 중국 수소 에너지 기업

최근 몇 년간 중국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의 연간 등록 수는 600개를 돌파하였다. 이는 중국 내 수소 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준다. 치차차(企查查)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 등록 수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총 691개의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이 등록되어 전년 대비 39.6%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중국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 등록 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개 이상을 유지했다. 2023년에는 총 670개의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이 등록되어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488개의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이 등록됐다.

[중국 수소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

분류	회사명
수소 제조 (업스트림 업체)	중국석유화학그룹(中国石油化工集团有限公司) China Petrochemical Corporation
	광둥은시과학기술주식회사(广东银禧科技股份有限公司) GUANGDONG SILVER AGE SCI & TECH CO., LTD.
	중국선화에너지주식회사(中国神华能源股份有限公司) China Shenhua
	장쑤화창화학주식회사(江苏华昌化工股份有限公司) Jiangsu Huachang Chemical Co., Ltd.
수소 저장·운송 (미들스트림 업체)	베이징징청메카트로닉스주식회사(北京京城机电股份有限公司) Beijing Jingcheng Electromechanical Co., Ltd.
	중차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中材科技股份有限公司) Sinoma Science & Technology Co., Ltd.
	스자좡 안루이코 가스 머신러리 주식회사(石家庄安瑞科气体机械有限公司) Shijiazhuang Enric Gas Equipment Co., Ltd.
수소 사용 (다운스트림 업체)	베이징 이화통 테크놀로지 주식회사(北京亿华通科技股份有限公司) SinoHytec
	푸젠 세런 그룹 주식회사(福建雪人集团股份有限公司) Fujian Snowman Co., Ltd.
	란저우 창청 전기 주식회사(兰州长城电工股份有限公司) Lanzhou Great Wall Electrical co.,Ltd.
	중산 다양 전기 주식회사(中山大洋电机股份有限公司) BROAD-OCEAN

자료: 북극성 수소에너지망(北极星氢能网), 소후(搜狐), 다렌무역관

5. 중국 수소 에너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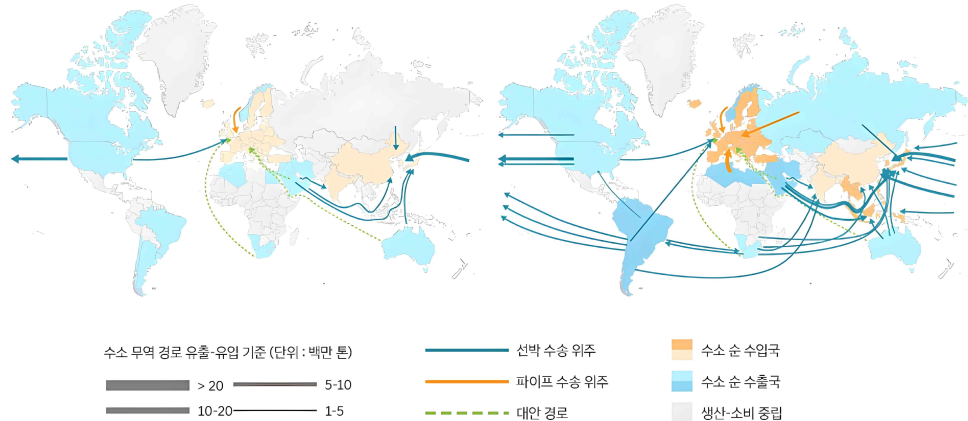
2030년 이후 수소는 주요 연료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거래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에너지는 지역별 산업용 가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글로벌 상품으로 전환될 것이다.



포커스

아래 지도는 2030년(왼쪽)과 2050년(오른쪽)의 전 세계 수소 수출입 흐름을 보여준다. 2030년까지는 수소 수출입이 일부 지역 중심으로 제한되지만, 2050년에는 수소의 대륙 간 이동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과 2050년 전 세계 수소 주요 이동 전망]



자료: Hydrogen Council (2022), Global Hydrogen Flows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 공급이 비교적 자급자족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나, 2050년에는 수소 순 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중동, 중남미 등 주요 수소 생산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수소 수송 경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파이프라인 및 액화 수소 운송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수소 수요 중심지로 부상하며, 일본과 한국 등 주변 국가와의 수소 협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수소 수입뿐 아니라 저장, 분배, 소비 측면에서도 전략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전망은 중국이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수소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산업계는 수소 생산 확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참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소 에너지는 주로 에너지 저장, 집중 발전 및 분산 발전, 수소 자동차, 수소 선박, 수소 항공, 수소 기반 건물 난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방면의 수요 확대는 중국의 탄소 중립 전략과 맞물려 수소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중국수소에너지연맹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연간 수소 수요량은 약 3,71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수소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2040년에는 5,726만 톤, 2050년에는 9,69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60년에는 약 1억 3,03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최종 에너지



포커스

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20-2060 중국 수소 수요량 예측]



자료: 중국 수소에너지 연맹, 중상산업연구원 정리

또한, 이와 같은 수소 수요 확대 속에서도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수요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철강, 화학, 정유 등 기존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가 수소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이러한 수소 수요 전망은 중국이 세계 수소 시장에서 중요한 소비국이자 기술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6. 중국 수소 선박 개발 현황 및 전망

중국은 수소 연료전지 선박을 내륙·연안 중심으로 시범단계에서 실증 및 상용화 전환을 위한 기술·제도 정비에 집중하며, 2025년 중기까지 본격적으로 상용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3년, 후베이 이창에서 500 kW급 연료전지를 탑재한 ‘삼산샤칭저우(三峡氢舟) 1호’가 CCS 인증을 받고 시범 운항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2025년까지 내륙·연안 시범선 50척 내외 운항을 목표로 현재 관광·비즈니스용 ‘서해신원1호’, 64TEU급 내륙 컨테이너선, 하이브리드 예인선 등의 다양한 선박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술적으로는 PEM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장수명 고출력화(수백 kW~MW 급) 및 경량화 저장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SOFC 및 암모니아·액체수소 연료 탐색도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료전지 시스템의 고비용(현재 kW당 약 10,000 RMB), 수소 충전소 인프라 미비, 안전·표준 규제 정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도



포커스

직면하고 있다. 선박용 충전 시스템 설계, 부두 인프라 규격, CCS 등급 기준 확립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 면에서는 ‘중장기 수소에너지 발전계획(2021-2035)’, 에너지법, 산업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정책, 그리고 2024-2025년 수전해설비 및 충전 인프라 지원책(충전소, 보조금, 세제 등)이 마련되었다. 수소 연료전지 차량, 풍력·태양광 연계 수소 생산, 항만 그린수소 도입 등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시장 대응 측면에서는 수소 선박 관련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중국 여러 지역에서 수소 기반 선박 연료 보급 시범 프로젝트로 항구 내 충전소 50개 이상 구축이 예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현재 내륙·연안 중심의 수소 선박 시범 단계에서 실증→상용화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2025년 중기에는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고출력·장수명 연료전지 개발, 수소 인프라 확충, 안전·인증 체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 내륙뿐 아니라 해상·원양 선박으로도 확대되며 글로벌 수소 선박 시장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포커스

중국 수산업 동향 및 정책 분석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으로, 2023년 기준 어업 관련 산업 총생산은 약 32조 6,699억 위안에 달한다. 생산의 중심지는 광둥(廣東), 산둥(山東), 푸젠(福建), 장쑤(江蘇) 등 연안 지역으로, 이들 5개 성이 전체 수산물의 약 47%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수산업은 양식 중심의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전체 생산의 81.9%가 양식산이다. 이러한 생산 구조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부합한다.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중심으로 수산업의 고도화와 친환경 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022년 농업농촌부가 발표한 《전국 어업 발전 5개년 계획(“十四五”全国渔业发展规划)》은 산업 구조 개선, 생태계 보호, 과학기술 접목,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12개의 정량 목표를 제시하며, 수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공급 안정화, 양식업 첨단화, 종자 산업 육성’의 세 가지 향상과, ‘가공 및 유통 체계 강화, 기술·제도 혁신, 생물자원 보호’의 세 가지 축진을 중심으로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전략 중 하나는 심해 양식 산업의 육성이다. 중국은 중대형 해양 설비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연안을 넘어 심해와 외해로 양식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심해 가두리, 해상 양식 플랫폼, 양식선박 등을 활용해 수심 15~20m 이상의 해역에서 양식이 이뤄지도록 하고, 해역 사용료 감면과 금융 지원, 장비 보급 등 다방면의 정책적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이 같은 전략은 양식 산업의 공간적 확장을 넘어서 식량 안보 확보와 해양 산업의 전략적 고도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수산자원의 보호 측면에서는 장강(長江) 유역의 ‘10년 금어 조치’가 대표적이다. 2021년부터 장강 본류와 주요 지류에서 상업적 어획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시행 첫해에만 약 11만 척의 어선과 23만 명의 어민이 철수했다. 또한, 2024년 기준 장강 본류의 자원 단위량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행정위반 건수는 24.7% 감소했다. 관측된 토착 어종 수는 344종으로, 금어기 시행 이전보다 36종이 증가했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장강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 서식지 복원 시범지역도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생태 관광 및 환경교육과의 연계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수질오염, 서식지 파괴, 지류 단절 문제들이 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업 제한 외에도 산업단지의 친환경



포커스

전환, 폐수 관리, 생물서식지 복원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친환경 양식 확대를 위한 기술적 기반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농업농촌부는 2021년 《5대 녹색 건강 양식 행동강령(关于加快推进水产养殖业绿色发展的若干意见)》을 통해 생태형 양식 모델 확대, 양식 폐수 처리 기술 강화, 수산물 약품 사용 감축, 배합사료 전환, 수산 종자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2025년까지 주요 양식 품종에서 100% 배합사료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못 개조, 순환식 수조 시스템, 스마트 어망 등 기술의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푸저우(福州) 해양어업국은 2023년 《10대 수산물 품질 강화 조치(关于加强水产品质量安全监管工作的十条措施)》를 발표하며 친환경 시범구 조성, 약물 관리 강화, 이력추적제 도입, 단속 체계 구축, 공공신용 연계 등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이는 수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중국의 수산업은 고도화, 친환경화, 자원 보호, 품질 강화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향후 동아시아 수산물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산 및 소비 동향

중국 수산물 산업은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연간 총생산량은 7,366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소비량도 7,635만 톤으로 3.0% 늘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과 양식 산업의 구조 안정화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5년에도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총생산량은 7,442만 톤(+1.0%), 소비량은 7,740만 톤(+1.4%)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양식산 수산물은 6,13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고, 어획량은 1,309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가공 수산물 생산량은 2,2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으며, 가공용 원재료 투입량 역시 2,620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해양수산물이 1,980만 톤, 내수면 수산물이 640만 톤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수면 어종의 가공 방식은 간편 조리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손질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포커스

동시에 수산물 가공 산업의 기반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공시설 수는 9,433곳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총 처리 능력도 3,020만 톤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가공 거점은 산둥, 푸젠,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후베이(湖北) 등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가공 수산물 생산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편중은 향후 가공 인프라의 균형 발전 필요성도 시사한다.

가격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세 또는 하락세가 관측되고 있다. 2024년부터 주요 양식 수산물의 평균 도매가는 이전보다 낮아졌으며, 이는 중국 내 양식산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수입 수산물 및 육류와의 경쟁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매가 하락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수산물 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 농업농촌부 또한 “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예외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담수어 시장에서는 산천어, 붕어, 잉어, 화련어, 편어(鰱魚) 등 대형 담수 어종을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계절적 수요 확대, 출하 지연, 재고 부족, 생산지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광시 난닝(南寧) 지역의 대형 산천어는 8.2위안/근까지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9.5위안/근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붕어는 예년보다 빠르게 강세 구간에 진입하며, 장쑤 지역의 대형 붕어는 15위안/근에 거래되고 있다.⁵⁾

특히 외식 수요 회복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생선 머리 요리에 사용되는 화련어와 프리미엄 종으로 분류되는 대형 편어 등은 지역에 따라 10위안/근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고가 기조는 9월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품종별 가격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양식 농가는 출하 시점, 질병 관리, 사료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비 트렌드 측면에서는 양적인 확대를 넘어 질적인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은 육류와 함께 중국인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건강과 영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의 전략적 소비 가치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서부 내륙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고단백·저지방 식품이라는 인식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2024년 기준 1인당 식용 수산물 소비량은 15.1kg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약 45% 증가했다.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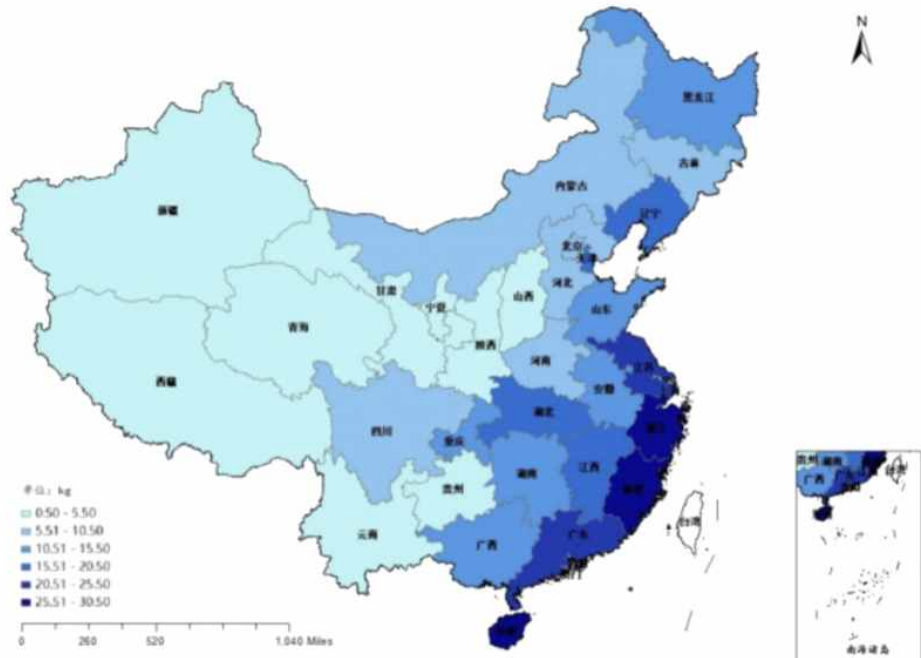
5) 水产养殖网(2025.7.6.), 紧急! 淡水鱼大规格鱼 “断档”! 草鱼抢破10元, 鲫鱼或冲16元? 花鲢、鳊鱼回调



포커스

다만, 지역 간 소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저장성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75.19kg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하이난, 푸젠, 상하이, 광둥 등 해안 지역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티베트(西藏), 칭하이(青海), 닝샤, 간쑤(甘肃), 신장(新疆), 산시(陕西) 등 고산 내륙 지역은 1~2kg 수준으로 매우 낮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남부 지역(44.19kg)과 북부 지역(17.90kg) 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해, 수산물 소비의 지역 편차는 여전히 중국 수산업의 구조적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⁶⁾

2022년 중국 지역별 수산물 소비량



자료: 중국농촌망

유통 측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 유통 채널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신선·냉동 새우, 즉석조리 수산물, 어류 등이 온라인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전통 시장에서 디지털 채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틱톡(TikTok)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둥성의 온라인 수산물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 구매 방식의 변화와 물류 인프라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6) 中国水产科学研究院渔业发展战略研究中心(2023.12.28.), 中国居民水产品食用消费量 测算与分析报告 (2023)



포커스

중장기적으로 중국 수산물 산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9년 수산물 총생산량을 7,694만 톤, 2034년에는 7,874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양식산이 전체 생산의 8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비 역시 같은 기간 8,306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간편식 가공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의 고급화와 간편화를 모두 반영하는 경향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수산물 산업은 생산 기반 확대, 가공 품질 고도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수출입 동향

중국을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수출입 측면에서도 글로벌 수산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수산물 수출은 두족류(오징어·문어 등), 틸라피아, 참치, 보리새우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들 품목의 연간 수출량은 각각 두족류 60.7만 톤, 틸라피아 47.9만 톤, 참치 28.4만 톤, 보리새우 17.5만 톤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두족류가 36.7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리새우가 20.9억 달러, 틸라피아와 참치가 각각 14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출 구조는 중국 수산업이 단순 원물 수출을 넘어, 주요 품목 중심의 고부가가치 수출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품목도 과거 단순 냉동 어류에서 고부가가치 가공품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국내산 원료에 수입 원료를 혼합해 가공하는 방식이 확대되며, 중국 수산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수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34.4억 달러), 미국(21.9억 달러), 한국(17.3억 달러), 말레이시아(14.8억 달러), 홍콩(12억 달러), 태국(10.2억 달러) 등이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최근 5년간 수입 규모가 급성장하며 주요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유럽(스페인, 영국, 독일)과 신흥국(필리핀, 멕시코, 코트디부아르 등)으로의 수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수출 시장의 지리적 다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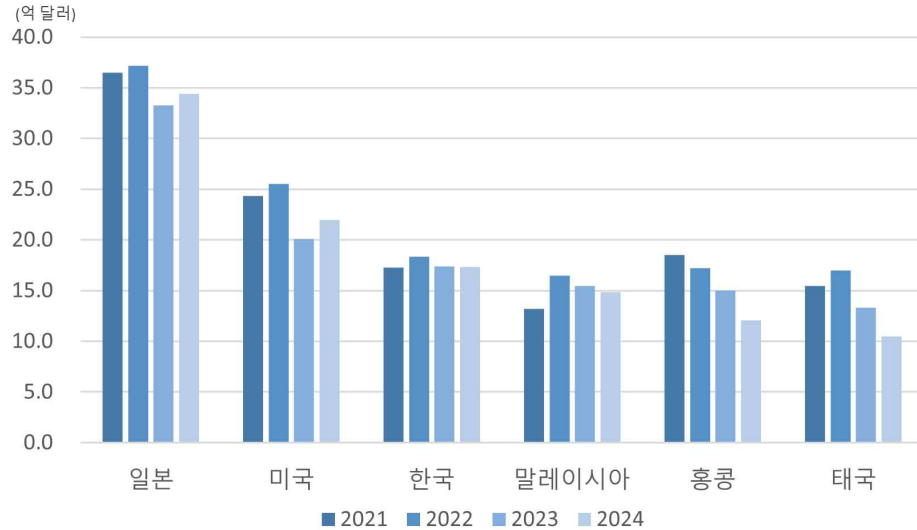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포커스

중국 수산물 주요 수출국



자료: 중국 해관총서, 대외경제무역대학 디지털 경제 연구소

반면, 수입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수산물 총수입량은 약 460만 톤, 수입액은 약 177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금액 기준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고급 수산물 수요 증가, 해외 원료 의존도 확대, 가공 산업 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주요 수입 품목은 새우, 대구, 랍스터, 게 등이며, 이 네 가지가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어분(192.8만 톤)이 가장 많고, 보리새우(94.5만 톤), 대구(83.5만 톤), 두족류(40.2만 톤)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는 바닷가재(15.9%), 게류(11.7%), 어분(10.4%)이 두드러진 반면, 연어, 메기, 조개류는 수입이 감소했다. 특히 베트남산 메기는 품질 문제와 통관 지연 등 비관세 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는 러시아, 에콰도르, 캐나다, 베트남 등이 있다. 2025년 4월 기준 베트남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중국이 부상했으며, 같은 해 1~4월 누적 수입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러시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현재 911개 수산기업이 중국 수출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수산물 90% 이상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으며, 2025년 2월부터는 참치 통조림의 무관세 수출도 본격화됐다.



포커스

중국 수산물 주요 수입국



자료: 중국 해관총서, 대외경제대학교 디지털 경제 연구소

이처럼 중국의 수산물 수입 구조는 단순 수입 확대를 넘어, 고부가가치 가공산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시에 수입국의 지리적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수산물무역

2024년 기준, 중국은 한국의 제2위 수산물 수출 대상국으로, 김, 참치, 삼치 등을 중심으로 연간 약 5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전년 대비 18.3% 감소한 수치로, 한국의 대중 수산물 수출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내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외에도, 러시아·일본 등지에서의 저가 수입 수산물 확대, 그리고 ‘우회 재수출’ 방식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국은 코로나 19 이후 러시아 및 동남아 지역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한국을 경유하여 다시 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수산물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이후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과 우회 수입 감소를 위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품 개발, 현지화 제품 전략,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수출단지 내 김 생산 고도화, 참치·삼치 기반 고차가공 기술개발, 對중국 타깃형 제품 설계 등을 통해 품질 차별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전남을 중심으로 수출단지 및 R&D 특화기반이 조성 중이다.



포커스

한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 재개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해관총서가 지난 6월 29일 후쿠시마 등 10개 도를 제외한 일본 수산물의 수입이 조건부로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수산물과의 가격·품질 경쟁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시에, 러시아산 수산물도 對중국 수출 확대가 전망되어 우리 수산물의 경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무역지원센터 확대(2025년 기준 8개국 11개소, 파리 신규 개소 예정) 및 BI(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운영을 통해, 현지 상담 및 바이어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한중 FTA 후속 협상, 검역기준 상호 인정, 수출국 다변화 전략 등 제도적 기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 및 자료

■ 경제

▶ 중국 제조업 PMI

구분	2025.06	2025.05	2025.04	2025.03	2025.02
PMI(%)	49.7	49.5	49.0	50.5	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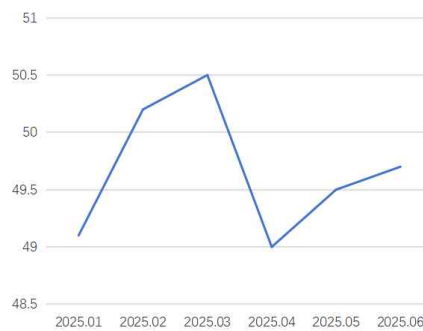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 철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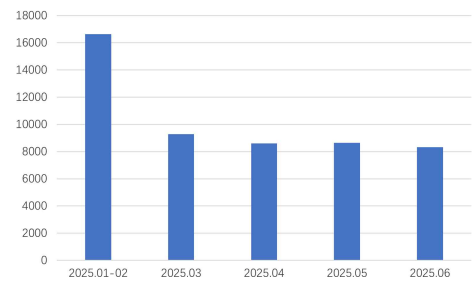
구분	2025.06	2025.05	2025.04	2025.03	2025.01-02
당월(만톤)	8,318.4	8,654.5	8,601.9	9,284.1	16,629.5
전년 동기 대비(%)	-9.2	-6.9	0.0	4.6	-1.5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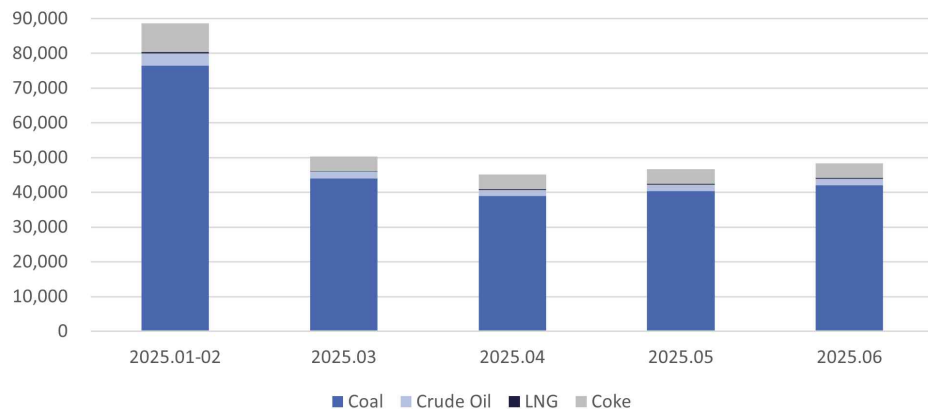
<중국 철강 생산량(만톤)>



▶ 중국 에너지 생산량

구분	2025.06	2025.05	2025.04	2025.03	2025.01-02
Coal(만톤)	42,107.4	40,328.4	38,930.6	44,058.2	76,532.8
Crude Oil(만톤)	1,819.8	1,846.9	1,772.4	1,902.5	3,503.8
LNG(만톤)	245.7	243.6	236.9	234	381.7
Coke(만톤)	4,170.3	4,237.6	4,160	4,129.4	8,189.6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025년 7월 22일
제 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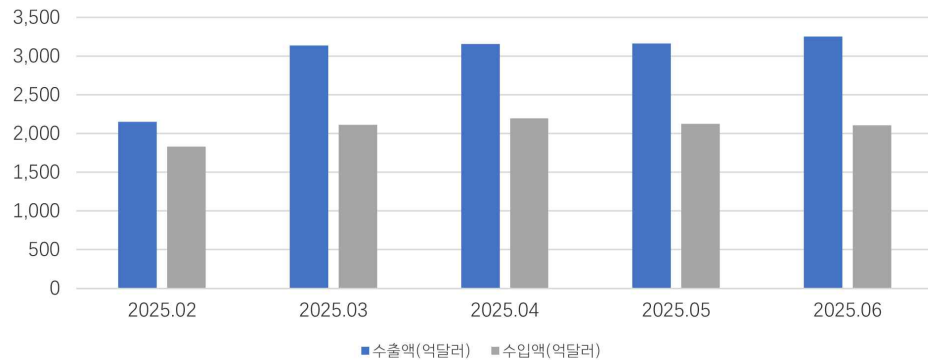


통계 및 자료

▶ 중국 수출입액

구분	2025.06	2025.05	2025.04	2025.03	2025.02
수출액(억달러)	3,252	3,161	3,157	3,139	2,151
수입액(억달러)	2,104	2,128	2,195	2,113	1,834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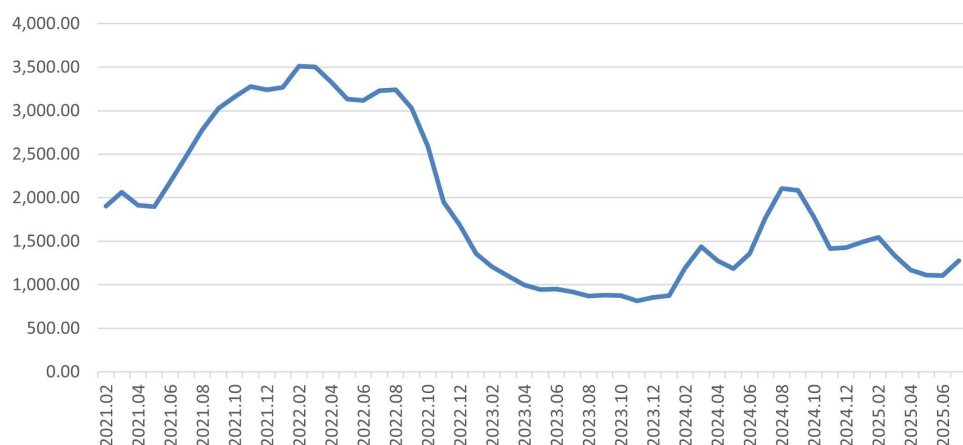


■ 해운

구분	평균운임지수		월평균운임지수			전년 동월 대비 (%)
	2024년	2025년-현재	4월	5월	6월	
수출	1,554.45	1,259.61	1,112.88	1,109.07	1,277.46	-27.8

자료: 항운교역소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CCFI)>





통계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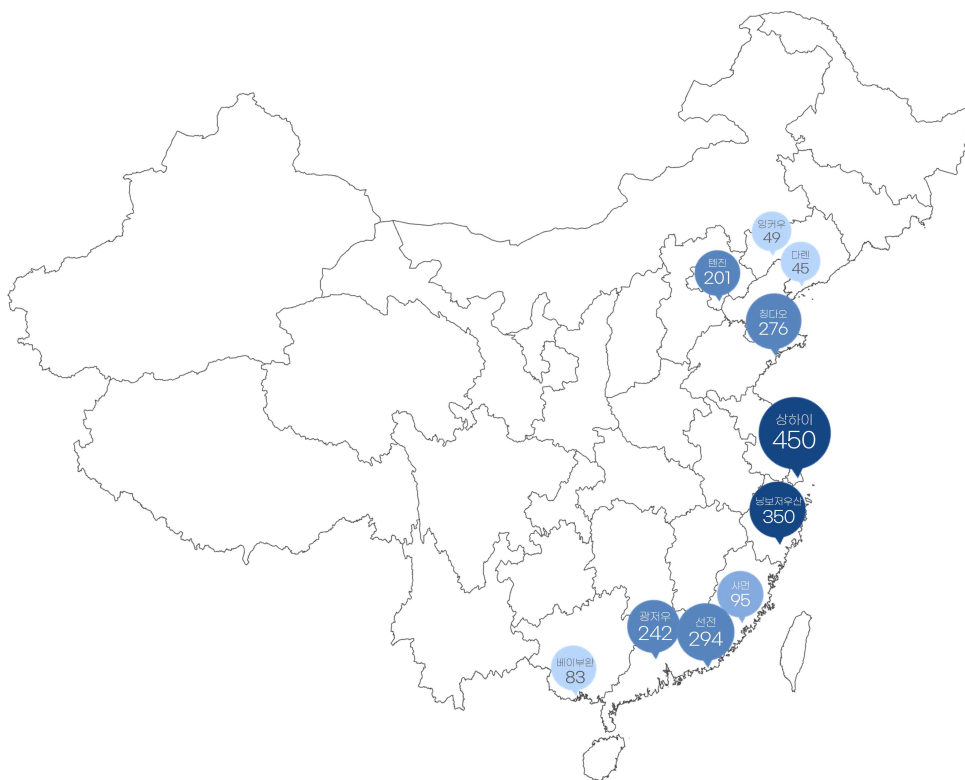
■ 항만

▶ 중국 컨테이너항만 처리량 (만 TEU)

구분	2025.05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5.01-05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전체	3,037	3.9%	5.4%	14,262	7.4%
상하이	465	3.3%	10.2%	2,236	7.2%
닝보저우산	375	7.1%	8.7%	1,732	9.6%
선전	289	-1.7%	-0.3%	1,423	12.7%
광저우	245	1.2%	7.0%	1,130	7.7%
칭다오	287	4.0%	9.1%	1,354	7.7%
톈진	221	10.0%	1.4%	993	3.7%
샤먼	99	4.2%	-3.9%	491	2.5%
잉커우	52	6.1%	8.3%	236	2.2%
다롄	45	0.0%	2.3%	219	3.3%
베이부만(북부만)	88	6.0%	11.4%	388	10.5%

자료: 중국 교통운수부

<중국 컨테이너 항만 처리량 (만 TEU)>





통계 및 자료

■ 수산

▶ 중국 수산물 생산량

구분	2025.01-05	전년 동기 대비
해양 어획량(만톤)	330.13	1.77%
해수 양식 생산량(만톤)	878.76	5.01%
내수면 어획량(만톤)	26.90	-0.24%
내수면 양식 생산량(만톤)	1,291.23	4.22%
총 생산량(만톤)	2,527.02	4.12%

자료: 중국 어업어정관리국

< 중국연구센터 >

김태일 중국연구센터장, 이메일 : ktizorro@kmi.re.kr
 심보경 인턴, 부미혜 인턴, 이메일 : chinacenter@kmi.re.kr
 김명화 행정원, 이메일 : jinminghua@kmi.re.kr

2025년 7월 22일
제 7 호